

찰흙공 빚어 테이블에... 관객 참여가 곧 작품

October 17, 2016

찰흙공 빚어 테이블에... 관객 참여가 곧 작품

김수자 '마음의 기하학' 展

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'현대자 시리즈 2016:김수자-마음의 기하학'전은 소리, 빛, 이불보 등을 통해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이슈를 탐구한 작품을 선보이며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김수자 작가의 진면목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다.

특히 이번엔 전시되는 대형 설치작품 '마음의 기하학' (사진)은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품이어서 미술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. 작품은 19



m 크기의 목재 타원형 테이블로 김 작가가 즐겨 활용하던 보파리나 이불보 대신 선택한 소재다. 관람객들은 미술관으로부터 받은 찰흙 덩어리를 공모양으로 빚

어 테이블 위에 얹으면 되는데 찰흙을 빚는 동안 테이블 아래 설치된 16개의 스피커에선 32가지의 소리가 흘러나온다. 이 소리 또한 '구의 궤적'이라는 이름이 붙은 예술 작품이다.

작가는 "관객이 사운드를 들으며 만든 찰흙 덩어리를 테이블 위에 얹을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"고 설명하며 "찰흙으로 공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 물질의 차원이 비물질적인 상태로 나아가고, 저의 마음까지 변환하는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관객과 나누고 싶었다"고 말했다.